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홍 경 준*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가 어떠한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빈곤한 사람들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고용상태가 자주 변화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개인 단위로 측정할 때 빈곤률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측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남성의 비중이 약간 많고, 30~60세까지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많으며,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의 순이었고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 농림수산업, 도소매, 광업 및 제조업의 순이었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비빈곤층은 물론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덜 일하기 때문에 빈곤하다는 생각이 틀리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구의 여건,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거나 덜 하도록 강제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 론

일반적으로 빈곤의 문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약집단, 즉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편부모 집단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근로능력을 가지거나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여러 연구들(박찬용·김진욱·김태환, 1999; 구인회, 2001; 금재호, 2003)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흔히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빈곤집단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들로, 노동시간 부족과 낮은 임금, 실업과 취업의 반복 경험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vitan·Shapiro, 1987; Schiller, 1998; 이태진, 2003).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등장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임시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직,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업층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미국과 같이 노동시장이 유연한 곳에서 근로빈곤층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이들의 빈곤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황덕순, 2001; 금재호·김승택, 2001; 이병희·정재호, 2001; 홍경준, 2004)이 고용특성이 빈곤지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연구들은 사실 근로빈곤층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다 직접적으로 근로 빈곤층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주희, 1998; 이태진, 2003; 금재호, 2003, 홍경준, 2003) 또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로 인해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가 어떠한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근로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는가?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상당한 규모로 출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이들의 규모가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과 근로빈곤층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변화추이는 빈곤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의와 측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빈곤의 정의와 그 변화추이

가. 빈곤의 정의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정의될 수 있다(Ruggles, 1990; Citro and Michael, 1995). 그러므로 빈곤의 측정은 어떤 개인(가구)이 가진 경제적 자원과 욕구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가 무엇인지와 욕구의 수준(빈곤선)을 측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흔히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이나 소비가 활용되며, 빈곤선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절대적 기준이나 상대적 기준이 활용된다.

절대적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의 수준을 기본적 욕구로 파악하고, 그러한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나 소비를 빈곤선으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절대적 빈곤선은 한 시점에서 결정된 이후에는 물가변화만이 고려된다. 반면에 상대적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의 수준이 사회의 일반적 욕구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의 수준은 상대적인 것으로 다른 사회성원들의 일반적 욕구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다.

빈곤을 측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빈곤의 규모는 물론 그 변화추이는 달라진다.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된다고 가정할 때,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빈곤의 추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빈곤의 추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상대적 빈곤이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해서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곤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의 빈곤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도 두 가지 개념의 빈곤을 모두 활용하는데, 각각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절대적 빈곤선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KLIPS) 중 2차년도 조사자료를 통해 구하였다. 즉, 2차년도 조사자료에 수록된 가구의 연간 총소득(비경상소득 포함)을 균등화지수로 조정¹⁾한 균등화 소득(equivalence income)의 분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구하고, 이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한다.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한 이유는 이 소득액이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유사하기 때문이다²⁾. 한편 상대적 빈곤선은 해당년도의 소득분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중 2차년도의 경우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동일하지만, 그 이후인 4차년도와 6차년도의 경우에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은 다르다. <표 1>은 분석대상년도의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

(단위 : 만원)

| | 2차년도(1999) | 4차년도(2001) | 6차년도(2003) |
|---------|------------|------------|------------|
| 절대적 빈곤선 | 350.02 | 350.02 | 350.02 |
| 상대적 빈곤선 | 350.02 | 400.00 | 478.95 |

주 : 1) 각각의 조사자료에서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소득으로 측정되었음. 따라서 2차년도(1999) 소득액은 1998년의 소득액을, 4차년도(2001)는 2000년의 소득액을, 6차년도(2003)는 2002년의 소득액을 말함.

2) 각각의 소득은 소비자 물가지수로 조정된 소득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1) 조정된 소득 = 가치분소득/가구규모E. 여기에서 균등화 탄력성 E는 0부터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값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적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균등화 탄력성을 0.5로 두어 가구 규모를 조정한다.

2) 200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가구규모에 따라 2000년 소비실태조사 자료에서 추정된 중위소득의 38.3~44.7%에 있다.

나. 빈곤의 변화추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증가되었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OECD 기준 빈곤률은 1997년의 9.7%에서 1998년과 1999년 상반기에 약 17.6%와 17.8%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층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도 1997년 4.2%에서 1998년과 1999년 평균 9%로 증가하였다(유경준, 2000). 하지만,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한국의 빈곤문제는 다소 완화되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표 2>는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우선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차년도 조사자료(1999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률은 약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인 4차년도 조사자료(2001년 자료)에서는 빈곤률이 약 12.4%로 감소하였고, 다시 2년 후인 6차년도 조사자료(2003년 자료)에서는 9.3%로 감소하였다. 가구단위로 측정된 빈곤률의 변화추이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빈곤갭 비율(average poverty gap)로 측정된 빈곤의 변화추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가구단위로 측정된 빈곤갭비율은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8.7%이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8.9%로 나타나서 2년 사이에 약간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7.1%로 확인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빈곤의 규모는 외환위기가 극복됨에 따라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추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절대적 빈곤 개념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해석되어야 한다. 절대적 빈곤은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 빈곤의 변화추이

(단위 : %, 명)

| | | 2차년도 | 4차년도 | 6차년도 |
|--------|--------------|------------|------------|------------|
| 절대적 빈곤 | 빈곤률 | 13.6(16.1) | 12.4(15.5) | 9.3(13.5) |
| | 빈곤갭비율 | 7.3(8.7) | 7.1(8.9) | 4.8(7.1) |
| |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 | 3.0 | 2.8 | 2.3 |
| 상대적 빈곤 | 빈곤률 | 13.6(16.1) | 14.0(17.5) | 13.3(18.2) |
| | 빈곤갭비율 | 7.3(8.7) | 7.9(9.9) | 6.5(9.5) |
| |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 | 3.0 | 2.8 | 2.4 |
| 사례수 | | 4,469 | 4,195 | 4,553 |

주 : 1) 괄호안은 가구 단위의 빈곤률임.

2) 가구가중치 * 가구원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이러한 점 때문에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빈곤의 실제 규모를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규모와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상대적 빈곤으로 측정된 빈곤의 변화추이는 절대적 빈곤과는 달리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개인단위로 측정된 빈곤률은 2차년도 조사자료보다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 더 높게 나타나지만, 다시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4차년도를 정점으로 빈곤률은 감소하여, 6차년도의 빈곤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2차년도의 빈곤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갭비율로 측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가구단위로 측정된 빈곤의 규모와 변화추이는 이와 다르다. 외환위기 직후인 2차년도의 경우 가구단위 빈곤률은 약 16.1%인데, 2년 후에는 17.5%로 증가하였고, 다시 2년 후에는 18.2%로 증가하였다. 개인단위로 측정된 것과는 달리 가구단위로 측정된 상대적 빈곤률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빈곤갭 비율로 측정할 경우에는 약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역시 외환위기 직후인 2차년도와 비교할 때 4년이 지난 6차년도의 가구단위 빈곤갭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³⁾.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이러한 추정결과가 포함하는 추정오차의 문제이다. 추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95% 신뢰수준에서 빈곤률을 구간추정해 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빈곤의 변화추이에 대한 구간추정의 결과

| | 2차년도 | | 4차년도 | | 6차년도 | |
|--------|-------|------|-------|------|-------|------|
| | 하한 | 상한 | 하한 | 상한 | 하한 | 상한 |
| 절대적 빈곤 | 12.6 | 14.6 | 11.4 | 13.4 | 8.5 | 10.2 |
| 상대적 빈곤 | 12.6 | 14.6 | 12.9 | 15.0 | 12.4 | 14.3 |
| 사례수 | 4,469 | | 4,195 | | 4,553 | |

주: 1) 가구가중치 * 가구원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표 3>을 보면, 구간추정해 본 결과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절대적 빈곤으로 측정된 빈곤률은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줄어드는 경향을 확실히 보여주지만, 상대적 빈곤으로 측정된 빈곤률은 확실한 감소추세를 보여주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상대적 빈곤으로 측정된 빈곤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개인 단위로 빈곤을 측정할 때와 가구 단위로 빈곤을 측정할 때 이렇게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은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으로 측정된 경우, 2차년도 빈곤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0명인데 비해 6차년도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4명이다.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경향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빈곤가구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측정된 빈곤은 감소하는데 반해 가구 단위로 측정된 빈곤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배경에는 노인단독가구나 편부모가구 등 가구원수가 적은 취약가구가 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 혹은 빈곤이 가족의 해체를 초래하여 가구원수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2. 근로빈곤층의 개념과 그 규모

그렇다면,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2절에서는 이것을 다룰 것이다. 빈곤의 규모와 변화추이를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근로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그 규모와 변화추이는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정의

근로빈곤층은 편의와 목적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진재문, 2001; 홍경준, 2003; 이태진, 2003) 혹은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너무 낮아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킬 수 없는 모든 노동자’(Gorham and Harrison, 1990; Schiller, 1998), ‘현재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노동자’(Levitan · Gallo · Shpiro, 1993; 금재호, 2003) 등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정의했을 때에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했을 경우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될 수 있다. 근로를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하는 고용전략(employment strategy)을 염두에 둔다면, 근로능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까지도 근로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너무 낮아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킬 수 없는 모든 노동자’라고 정의했을 경우 비정규직 임금근로, 영세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구조의 악화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념정의는 앞의 개념정의와 달리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이다.

셋째, ‘현재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노동자’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했을 때에는 앞의 두 가지 개념정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본래 개념에 더 가까운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근로빈곤층이 가진 중요한 특성은 대단히 유동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드나들고, 취업과 미취업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 즉, 이번 주에는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비경활자가 다음 주에는 취업자일 수 있고, 그 다음주에는 다시 실업자로 되돌아가서 구직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노동자’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면, 현재 실업자나 실망실업자인 사람은 근로빈곤층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노동부의 정의이다.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을 ‘빈곤가구

에 속한 사람들 중 적어도 반년(1년 중 27주)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http://www.bls.gov/cps/cpswp2000.htm)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노동부의 이러한 정의를 참고하여 근로빈곤층을 빈곤한 사람들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고용상태가 자주 변화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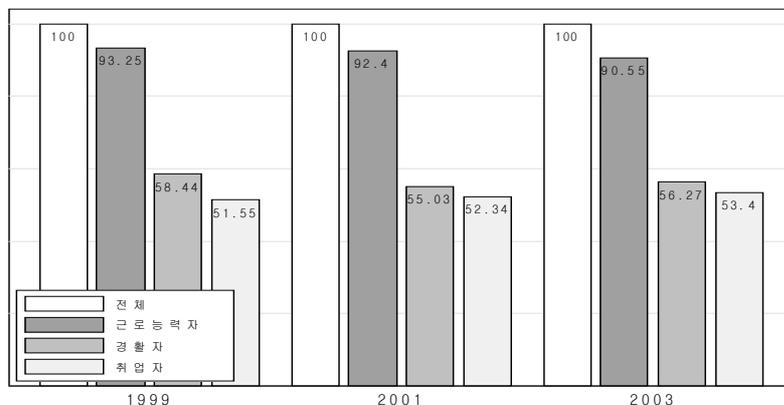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념정의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세 가지로 개념화하고, 그 규모와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각각의 근로빈곤층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는데,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의 일부가 경활 빈곤층을 구성하며, 다시 경활 빈곤층의 일부가 취업 빈곤층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이렇게 정의된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구를 근로빈곤가구로 정의한다.

- ① 근로빈곤층 I(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 ; 빈곤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중 지난 1주간 주요활동에 대해 '연로'나 '퇴직'으로 응답한 사람들 중 65세 이상인 사람과 '심신장애'로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 ② 근로빈곤층 II(경활 빈곤층) ; 빈곤가구의 근로능력을 가진 가구원 중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
- ③ 근로빈곤층 III(취업 빈곤층) ; 빈곤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나.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근로계층(working population)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노동패널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이 <그림 1>이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조사년도에 포함된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100으로 할 때, 앞에서 살펴본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에 일치하는 각각의 전체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림 1> 근로계층의 비중변화: 1999~2003



2차년도 조사자료(1999년)의 경우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근로능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이며, 현재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적어도 6개월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이다. 한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2년 후인 4차년도 조사자료(2001년)에서는 근로능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2%, 경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5%,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6차년도 조사자료(2003년)에서는 9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로 2차년도 조사자료 보다는 적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 보다는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취업자의 비중은 약 53%로 4차년도는 물론, 2차년도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러한 근로계층의 비중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정의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먼저 <표 4>는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와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은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계층 중에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근로계층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개인들의 규모와 변화추이, 그러한 개인들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를 노동패널조사자료의 2차년도, 4차년도 및 6차년도 자료를 통해 추정해보았다.

<표 4>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변화추이(근로빈곤층 I)

(단위 : %)

| | | 2차년도 | | 4차년도 | | 6차년도 | |
|--------|-----------|--------|-------|--------|-------|--------|-------|
| | | 개인 | 가구 | 개인 | 가구 | 개인 | 가구 |
| 절대적 빈곤 | 빈곤률 | 12.4 | 13.3 | 10.7 | 11.8 | 7.1 | 8.8 |
| | 빈곤층에서의 비중 | 83.6 | 77.0 | 78.3 | 69.9 | 65.9 | 59.0 |
| 상대적 빈곤 | 빈곤률 | 12.4 | 13.3 | 12.0 | 13.5 | 10.7 | 12.9 |
| | 빈곤층에서의 비중 | 83.6 | 77.0 | 78.3 | 70.8 | 69.9 | 63.9 |
| 사례수 | | 11,960 | 4,469 | 10,929 | 4,195 | 11,462 | 4,553 |

주: 1) 근로빈곤층 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의미함.

2) 근로빈곤가구는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3) 개인은 개인가중치로, 가구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먼저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면,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계층 중에서 빈곤한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계층 100명 중 약 12.4명이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2년 후인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7.1%로 대폭 감소하였다. 근로빈곤층의 감소는 이들이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전체 빈곤층 중에서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6%이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78.3%로, 다시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65.9%로 감소하였다. 가구단위로 측정

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비중 또한 2차년도부터 6차년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한 분석의 결과는 어떠한가?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 2차년도 조사자료의 빈곤률은 12.4% 이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의 빈곤률은 12.0%이며 6차년도 조사자료의 빈곤률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빈곤률 감소의 폭은 작지만, 빈곤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전체 빈곤층 중에서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구단위로 측정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비중의 감소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 중에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만으로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고, 그 규모와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는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빈곤 계층 중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만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와 변화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함과 동시에, 조사시점에서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는 취업하고 있었던 취업자나 구직활동을 수행하던 실업자를 모두 근로빈곤층에 포함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이 대단히 유동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른 개념정의 방식보다는 더 적절할 것이다.

<표 5>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변화추이(근로빈곤층 II)

(단위 : %)

| | | 2차년도 | | 4차년도 | | 6차년도 | |
|--------|-----------|--------|-------|--------|-------|--------|-------|
| | | 개인 | 가구 | 개인 | 가구 | 개인 | 가구 |
| 절대적 빈곤 | 빈곤률 | 11.4 | 11.6 | 8.9 | 9.6 | 5.8 | 6.8 |
| | 빈곤층에서의 비중 | 48.5 | 63.9 | 38.7 | 53.1 | 33.2 | 42.9 |
| 상대적 빈곤 | 빈곤률 | 11.4 | 11.6 | 10.2 | 11.0 | 8.9 | 10.7 |
| | 빈곤층에서의 비중 | 48.5 | 63.9 | 39.5 | 54.2 | 36.3 | 49.6 |
| 사례수 | | 11,960 | 4,469 | 10,929 | 4,195 | 11,462 | 4,553 |

주 : 1) 근로빈곤층 II는 경활 빈곤층을 의미함.

2) 근로빈곤가구는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3) 개인은 개인가중치로, 가구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근로빈곤층을 6개월 이내의 경활 빈곤층으로 정의한 <표 5>를 보면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는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의 <표 4>보다는 빈곤률이 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면,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6개월 이내의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한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앞의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계층의 빈곤률보다 약 1% 포인트 작은 것이다.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 근로빈곤층의

빈곤률은 약 8.9%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2년 후인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5.8%로 대폭 감소하였다. 4년 사이에 절반 이상으로 빈곤률이 감소한 것이다. 이들이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48.5%였는데 빠르게 감소하여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38.7%로, 다시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33.2%로 줄어들었다. 가구단위로 측정한 빈곤률 또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본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 또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약 11.4%인데, 4차년도에서는 이들의 비중이 약 10.2%로 줄어들었고, 6차년도에서는 다시 8.9%로 감소하였다. 이들이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일관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가구단위로 측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표 6>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변화추이(근로빈곤층 III)

(단위 : %)

| | 2차년도 | | 4차년도 | | 6차년도 | |
|------------|--------|-------|--------|-------|--------|-------|
| | 개인 | 가구 | 개인 | 가구 | 개인 | 가구 |
| 절대적 빈곤 빈곤률 | 10.2 | 11.0 | 8.4 | 9.4 | 5.3 | 6.4 |
| 빈곤층에서의 비중 | 38.1 | 58.3 | 35.0 | 51.3 | 29.0 | 39.6 |
| 상대적 빈곤 빈곤률 | 10.2 | 11.0 | 9.7 | 10.8 | 8.4 | 10.3 |
| 빈곤층에서의 비중 | 38.1 | 58.3 | 35.8 | 52.3 | 32.2 | 46.8 |
| 사례수 | 11,960 | 4,469 | 10,929 | 4,195 | 11,462 | 4,553 |

주 : 1) 근로빈곤층 III은 취업 빈곤층을 의미함.

2) 근로빈곤가구는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3) 개인은 개인가중치로, 가구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현재 취업하고 있는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와 변화추이를 살펴본 <표 6>에서도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점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면,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취업 근로계층 중에서 빈곤한 취업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2년 후인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5.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들이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전체 빈곤층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1%이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35.0%로, 다시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29.0%로 감소하였다. 가구단위로 측정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비중 또한 이 시기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한 분석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전체 취업 근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차년도 조사자료의 10.2%에서 4차년도 조사자료의 9.7%로, 6차년도 조사자료의 8.4%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층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 단위로 측정할 때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의 근로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단언은 추정에 따르는 추정오차를 고려한다면 역시 문제가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근로빈곤층을 6개월 이내의 경황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의 변화추이를 95% 신뢰수준에서 구간추정해 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근로빈곤층 규모의 변화추이는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개인 단위로 측정할 때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측정할 때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했던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근로빈곤가구의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표 7>은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근로빈곤층을 가구 총소득이 해당 년도의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 중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로 정의한다. 즉 앞서 제시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 가지 개념정의의 방법 중에서 두 번째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실업자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도 포함되지만 이들은 조사시점에서 최대 6개월 이내에는 취업상태에 있었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유동적인 지위가 근로빈곤층이 가진 중요한 특성을 감안하면, 이들을 근로빈곤층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7>을 보면 상용직과 비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단의 빈곤률은 2차년도부터 6차년도 사이에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취업자 집단의 경우 개인 단위로 측정한 빈곤률은 낮아지고, 가구 단위로 측정한 빈곤률만이 높아진 반면 상용자 집단은 개인 단위의 빈곤률과 가구 단위의 빈곤률 모두가 높아졌다. 가구 단위로 측정한 빈곤률을 보면 주소득자가 상용직인 가구의 빈곤률은 2차년도에는 4.9%이지만 4차년도에는 6.7%로 2% 포인트 가량 높아졌고, 다시 6차년도에는 7.9%로 높아졌다. 개인 단위로 빈곤률을 살펴볼 때도 상용직 집단의 6차년도 빈곤률은 약 5.5%로 4차년도의 빈곤률 5.9%보다는 낮아졌지만, 2차년도의 빈곤률 4.9%보다는 높다. 비취업자 집단은 개인 단위 빈곤률은 낮아졌지만, 가구 단위로 측정한 빈곤률은 높아진 집단이다. 이들의 경우 가구 단위로 측정한 2차년도의 빈곤률은 약 25%이지만, 4차년도에는 26.1%로 높아졌으며, 다시 6차년도에는 32.3%에 달한다. 하지만, 2차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자영자 집단의 6차년도 빈곤률은 2차년도의 빈곤률보다 낮다. 2차년도의 개인 단위 빈곤률이 23.0%로 가장 높은 집단인 일용직의 빈곤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6차년도에는 개인 단위의 빈곤률이 15.3%에 머물고 있다.

<표 7>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과 그 변화추이(빈곤빈곤층 II)

(단위 : %)

| | | 2차년도 | | 4차년도 | | 6차년도 | |
|-----------|-------|-------|-------|-------|-------|-------|-------|
| | | 개인 | 가구 | 개인 | 가구 | 개인 | 가구 |
| 빈곤률 | 상용직 | 4.9 | 4.9 | 5.9 | 6.7 | 5.5 | 7.0 |
| | 임시직 | 16.6 | 24.1 | 11.4 | 18.5 | 12.0 | 22.2 |
| | 일용직 | 23.0 | 30.7 | 19.9 | 25.7 | 15.3 | 21.0 |
| | 자영자 | 11.7 | 12.8 | 12.7 | 12.9 | 10.7 | 12.1 |
| | 가족종사자 | 15.9 | 35.2 | 14.6 | 21.4 | 10.9 | 18.9 |
| | 비취업자 | 20.5 | 25.0 | 19.7 | 26.1 | 19.9 | 32.3 |
| 빈곤층에서의 비중 | 상용직 | 17.9 | 21.0 | 28.6 | 33.3 | 31.6 | 36.7 |
| | 임시직 | 12.1 | 14.3 | 8.4 | 8.9 | 9.2 | 9.4 |
| | 일용직 | 13.4 | 19.9 | 12.6 | 17.6 | 11.5 | 13.8 |
| | 자영자 | 24.9 | 34.6 | 31.3 | 35.3 | 28.6 | 34.0 |
| | 가족종사자 | 10.4 | 1.3 | 9.6 | 1.5 | 7.9 | 0.5 |
| | 비취업자 | 21.4 | 8.8 | 9.5 | 3.5 | 11.3 | 5.5 |
| 사례수 | | 6,979 | 3,943 | 6,029 | 3,612 | 6,470 | 3,835 |

- 주 : 1) 근로빈곤층 II는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경할 빈곤층을 의미함.
 2) 근로빈곤가구는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3) 개인은 개인가중치로, 가구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근로빈곤층에서 각각의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상용직 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단위로 살펴볼 때 상용직 집단이 전체 근로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차년도의 경우 17.9%이지만 4차년도에는 28.6%로 증가하였고, 6차년도에는 다시 31.6%로 증가하였다. 가구 단위로 살펴볼 때에도 주소득자가 상용직인 가구가 전체 근로빈곤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차년도의 경우 21.0%이지만 4차년도에는 33.3%로 증가하였고, 6차년도에는 다시 36.7%로 증가하였다. 자영자 집단의 비중 또한 늘어났는데, 6차년도에 근로빈곤층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6%인데 이는 4차년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31.3%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2차년도의 24.9%보다는 늘어난 것이다. 반면에 다른 모든 집단의 비중은 이 기간동안 감소하였으며, 특히 비취업자의 비중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고 그 규모와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규모는 빈곤측정의 기준과 단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정체, 혹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 나타나는 감소경향⁴⁾은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고용불안

4) 한편 이러한 감소경향은 분석에서 활용한 패널조사자료의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도 있다. 우선, 신규 가구원을 포함하긴 하지만 패널조사자료에서는 각 조사시점마다 이탈하는 표본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6차년도 조사자료까지 약 23%의 표본이 이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탈한 표본의 상당수는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빈곤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체 응답자 중에서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 때문에 급증한 근로빈곤층이 외환위기의 진정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측정된 빈곤률은 뚜렷한 감소경향을 보여주지는 못하며, 구간 추정의 결과는 오히려 이들의 규모가 증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근로빈곤층 규모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집단의 빈곤률은 오히려 늘어났고 그 비중 또한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III. 근로빈곤층은 누구인가?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장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들 가구에는 일하는 사람, 즉 근로계층이 적어도 1명 이상씩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빈곤계층과 비교할 때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결핍 정도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표 8>은 근로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을 모든 빈곤가구의 소득수준과 비교한 결과이다.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와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에서 근로빈곤가구의 소득수준은 모든 빈곤가구의 소득수준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든 빈곤가구의 가구 연평균소득은 약 2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 근로빈곤가구의 연평균소득은 약 268만원이며, 근로빈곤층을 경제활동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 근로빈곤가구의 연평균소득은 약 3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을 취업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에도 연평균소득액은 약 3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이긴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일반적인 빈곤가구의 그것보다는 약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소 나은 듯한 이들의 처지는 가구원 1인당 소득액을 비교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 모든 빈곤가구의 가구원 1인당 연평균소득은 약 120만원이지만,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원 1인당 연평균 소득은 그보다 적다.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 근로빈곤가구의 1인당 연평균소득은 약 111만원이며, 근로빈곤층을 경제활동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 근로빈곤가구의 1인당 연평균소득은 약 1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을 취업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에도 1인당 연평균소득은 약 1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근로빈곤층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일반적인 빈곤층이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원 수가 일반적인 빈곤가구의 가구원수보다 많기 때문인데, <표 9>를 보면 모든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약 2.4명인데 비해, 근로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법에 따라 2.7명에서 3.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표 8> 근로빈곤가구의 총소득

(단위 : 만원)

| | |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
|------------|--------|--------|--------|
| 모든 빈곤가구 | 중위소득 | 233.9 | 336.8 |
| | 평균소득 | 244.0 | 354.5 |
| | 1인당 소득 | 120.3 | 161.8 |
| 근로빈곤가구 I | 중위소득 | 280.6 | 421.0 |
| | 평균소득 | 267.7 | 406.0 |
| | 1인당 소득 | 111.0 | 159.8 |
| 근로빈곤가구 II | 중위소득 | 336.8 | 467.7 |
| | 평균소득 | 302.0 | 454.0 |
| | 1인당 소득 | 116.3 | 166.0 |
| 근로빈곤가구 III | 중위소득 | 336.8 | 477.1 |
| | 평균소득 | 312.5 | 466.4 |
| | 1인당 소득 | 118.4 | 169.1 |

주 : 1) 근로빈곤층 III은 취업 빈곤층을 의미함.

2) 근로빈곤가구는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3) 개인은 개인가중치로, 가구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표 9> 근로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

| | 사례수 | 평균가구원수 |
|------------|-----|--------|
| 모든 빈곤가구 | 856 | 2.41 |
| 근로빈곤가구 I | 546 | 2.71 |
| 근로빈곤가구 II | 420 | 2.92 |
| 근로빈곤가구 III | 399 | 2.97 |

주 : 1) 빈곤가구는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를 말함.

2) 근로빈곤가구 I은 근로능력을 가진 가구원이 포함된 빈곤가구를 말함.

3) 근로빈곤가구 II는 경활 가구원이 포함된 빈곤가구를 말함.

4) 근로빈곤가구 III은 취업 가구원이 포함된 빈곤가구를 말함.

5)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결국,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현재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빈곤층이 일반적인 빈곤계층 보다는 경제적 사정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빈곤층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근로빈곤층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근로빈곤층 개개인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자. <표 10>은 근

로빈곤층의 성별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조사에 응답하였던 15세 이상 전체 개인들의 성별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남성이 약 48%이며 여성이 약 52%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간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빈곤한 사람들만을 골라서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이 약 43%, 여성의 비중은 약 57%로 여성의 비중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빈곤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골라서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은 약 58%로 더 커진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을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정의하고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각각 50%로 오히려 남성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취업빈곤층으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할 경우에는 남성의 비중이 49%로 감소하는데, 결국 이러한 성별 구성은 15세 이상 전체 개인들의 성별 구성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즉, 일반적인 빈곤층보다는 근로빈곤층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10> 근로빈곤층의 성별 구성

(단위 : %)

| | 전체 (N=11,462) | 전체빈곤층 (N=1,651) | 근로 빈곤층I (N=1,154) | 근로빈곤층II (N=601) | 근로빈곤층III (N=537) |
|----|------------------|--------------------|----------------------|--------------------|---------------------|
| 남성 | 48.43 | 43.18 | 41.58 | 50.92 | 48.83 |
| 여성 | 51.57 | 56.82 | 58.42 | 49.08 | 51.17 |

- 주 : 1)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말함.
 2) 근로빈곤층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말함.
 3) 근로빈곤가구II는 경활 빈곤층을 말함.
 4) 근로빈곤가구III은 취업 빈곤층을 말함.
 5)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표 11>은 근로빈곤층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연령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표 11>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전체 빈곤층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로 절반 가까이 된다. 또한 30세 미만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7%로 큰 편이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으로 제한하여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빈곤층의 연령별 구성과는 약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연령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여전히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로 가장 많지만, 연령이 30세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이 약 25%로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는 점도 전체 빈곤층의 연령별 구성과는 다른 점이다.

근로빈곤층을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정의하고 연령별 구성을 전체 빈곤층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큰 차이가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연령이 40대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로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줄어든다. 또한 연령이 30세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은 약 15% 정도로 대폭 감소하는 반면, 연

령이 30대인 사람들의 비중이 약 20%로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을 현재 취업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제한하여 살펴볼 경우에도 여전히 연령이 40대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로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30대인 사람들이 약 19%, 50대인 사람들이 약 13%이며, 연령이 30세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은 약 14% 정도로 감소한다. 결국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30세~60세까지의 사람들이 근로빈곤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표 11> 근로빈곤층의 연령별 구성

(단위 : %)

| | 전체 (N=11,462) | 전체빈곤층 (N=1,651) | 근로빈곤층I (N=1,154) | 근로빈곤층II (N=601) | 근로빈곤층III (N=537) |
|------|------------------|--------------------|---------------------|--------------------|---------------------|
| ~29세 | 27.15 | 17.48 | 24.58 | 15.41 | 13.82 |
| ~39세 | 20.72 | 12.83 | 16.83 | 20.44 | 18.79 |
| ~49세 | 21.22 | 14.96 | 19.12 | 27.14 | 27.37 |
| ~59세 | 13.84 | 9.67 | 11.73 | 12.72 | 13.31 |
| 60세~ | 17.06 | 45.06 | 27.73 | 24.30 | 26.71 |

- 주 : 1)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말함.
 2) 근로빈곤층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말함.
 3) 근로빈곤가구II는 경찰 빈곤층을 말함.
 4) 근로빈곤가구III은 취업 빈곤층을 말함.
 5)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다음으로는 근로빈곤층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자. <표 12>를 통해 조사에 응답하였던 15세 이상 전체 개인들의 학력별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의 2/3 가량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 17%, 중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빈곤한 사람들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인적자본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빈곤층의 절반 가까이 되는 약 41%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약 16%에 불과하다. 빈곤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골라서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지만, 조사에 응답하였던 15세 이상 전체 개인들의 학력별 구성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상당히 큰 반면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층을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정의하고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더 늘어나는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더 줄어든다. 취업빈곤층으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화되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약 34%로 가장 커지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인적 자본의 취약성이 근로계층을 빈곤으로 빠지게 하는 중요한 요

인임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표 12> 근로빈곤층의 학력별 구성

(단위 : %)

| | 전체 (N=11,462) | 전체빈곤층 (N=1,651) | 근로빈곤층I (N=1,154) | 근로빈곤층II (N=601) | 근로빈곤층III (N=537) |
|-------|------------------|--------------------|---------------------|--------------------|---------------------|
| 초졸 이하 | 17.36 | 41.29 | 28.73 | 31.06 | 33.50 |
| 중졸 | 13.05 | 13.87 | 15.13 | 14.45 | 15.24 |
| 고졸 | 36.50 | 28.59 | 36.32 | 34.76 | 33.53 |
| 대졸 이상 | 33.09 | 16.24 | 19.83 | 19.73 | 17.73 |

- 주 : 1)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말함.
 2) 근로빈곤층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말함.
 3) 근로빈곤가구II는 경활 빈곤층을 말함.
 4) 근로빈곤가구III은 취업 빈곤층을 말함.
 5)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2. 근로빈곤층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앞의 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남성의 비중이 약간 많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30세~60세까지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어 개인적 특성이 취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층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서는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와 업종별, 직종별 구성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고용특성을 살펴보자.

먼저 <표 13>은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조사에 응답하였던 15세 이상 전체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44%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약 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자영자로 약 2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도 각각 7%,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약 65%로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용직의 비중은 약 11.5%이지만, 자영자의 비중이 약 10.4%로 빈곤층의 경우 자영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근로빈곤층의 경우는 상용직 임금노동자인 경우가 개념정의의 방법에 따라 약 16%에서 36%까지의 비중을 차지하며, 자영자인 경우가 15%에서 32%까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다 적절한 개념정의의 방법으로 주목했던 근로빈곤층 II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약 32%로 가장 많으며, 자영자의 비중은 약 29%로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보다는 약간 적지만, 근로빈곤층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도 각각 9.2%, 11.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4>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

(단위 : %)

| | 전체 (N=11,462) | 전체빈곤층 (N=1,651) | 근로빈곤층I (N=1,154) | 근로빈곤층II (N=601) | 근로빈곤층III (N=537) |
|-------|------------------|--------------------|---------------------|--------------------|---------------------|
| 상용직 | 28.70(51.56) | 11.46 | 16.39 | 31.57 | 35.58 |
| 임시직 | 3.85(6.91) | 3.35 | 4.78 | 9.22 | 10.39 |
| 일용직 | 3.76(6.76) | 4.16 | 5.95 | 11.46 | 12.91 |
| 자영자 | 13.45(24.17) | 10.39 | 14.78 | 28.62 | 32.25 |
| 가족종사자 | 3.64(6.53) | 2.85 | 4.00 | 7.86 | 8.86 |
| 실업자 | 2.26(4.07) | 3.08 | 4.27 | 8.48 | -- |
| 비경활 | 44.34(--) | 64.71 | 49.83 | 2.79 | -- |

- 주 : 1)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말함.
 2) 근로빈곤층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말함.
 3) 근로빈곤가구II는 경활 빈곤층을 말함.
 4) 근로빈곤가구III은 취업 빈곤층을 말함.
 5)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6) 괄호안은 비경활을 제외한 경우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표 15> 근로빈곤층의 직종별 구성

(단위 : %)

| | 경제활동종사자 | | | 취업자 | | |
|--------|-----------------|-------------------|------------------|-----------------|-------------------|------------------|
| | 전체 (n=6,470) | 비빈곤층 (n=5,869) | 근로빈곤층 (n=601) | 전체 (n=6,138) | 비빈곤층 (n=5,601) | 근로빈곤층 (n=537) |
| 전문관리직 | 22.53 | 23.67 | 10.91 | 23.74 | 24.78 | 12.29 |
| 사무직 | 11.70 | 12.30 | 5.65 | 12.33 | 12.87 | 6.37 |
| 판매서비스직 | 21.36 | 21.20 | 22.96 | 22.50 | 22.19 | 25.88 |
| 농어업 | 6.14 | 5.07 | 17.00 | 6.46 | 5.31 | 19.16 |
| 기능직 | 24.12 | 24.92 | 15.93 | 25.40 | 26.08 | 17.96 |
| 단순노무직 | 8.48 | 7.76 | 15.76 | 8.93 | 8.13 | 17.76 |
| 분류불가능 | 0.60 | 0.61 | 0.52 | 0.64 | 0.64 | 0.59 |
| 무직 | 5.07 | 4.47 | 11.27 | -- | -- | -- |

- 주 : 1) 경제활동종사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의미함.
 2) 취업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3)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근로빈곤층II와 근로빈곤층III을 말함.
 4)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이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제외한 현재 취업자를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의 고용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종사자 중에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 정의한 근로빈곤층 II, 즉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빈곤계층에 해당한다. 또한 실업자를 제외한 현재 취업자 중에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 정의한 근로빈곤층 III, 즉 현재 취업중인 빈곤계층에 해당한다.

먼저 <표 15>는 근로빈곤층의 직종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이를 보면 근로빈곤층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비빈곤층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빈곤층의 직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기능직의 비중이 약 2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문관리직으로 약 23.7%, 판매서비스직 21.2%의 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경우 판매서비스직의 비중이 약 23%로 가장 많으며, 농어업직이 17%로 그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사무직의 비중은 약 6.4%로 매우 작다. 또한,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직종별 구성의 분포보다 많이 관찰되는 직종은 농어업직과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으로 농어업직은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그것보다 3배 가까이 많으며, 단순노무직 또한 2배 가까이 더 많이 근로빈곤층에서 발견된다. 판매서비스직 역시 약간 더 많이 발견된다.

근로빈곤층을 취업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에도,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각각 25.9%, 19.2%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적인 경우도 약 18%이며,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약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무직의 비중은 약 6.4%로 비빈곤층의 절반도 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서도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직종별 구성의 분포보다 월등히 많이 관찰되는 직종은 농어업직과 단순노무직이었다.

<표 16> 근로빈곤층의 업종별 구성

(단위 : %)

| | 경제활동종사자 | | | 취업자 | | |
|-----------|-----------------|-------------------|------------------|-----------------|-------------------|------------------|
| | 전체 (n=6,470) | 비빈곤층 (n=5,869) | 근로빈곤층 (n=601) | 전체 (n=6,138) | 비빈곤층 (n=5,601) | 근로빈곤층 (n=537) |
| 농림수산업 | 6.21 | 5.11 | 17.44 | 6.54 | 5.35 | 19.66 |
| 광업및제조업 | 19.67 | 20.40 | 12.26 | 20.72 | 21.35 | 13.81 |
| 전기가스및운수통신 | 6.46 | 6.75 | 3.58 | 6.81 | 7.06 | 4.03 |
| 건설업 | 8.08 | 8.20 | 6.89 | 8.51 | 8.58 | 7.77 |
| 도소매 | 15.39 | 15.45 | 14.77 | 16.21 | 16.17 | 16.65 |
| 음식숙박 | 6.99 | 6.73 | 9.63 | 7.37 | 7.05 | 10.85 |
| 금융보험및부동산 | 5.43 | 5.74 | 2.32 | 5.72 | 6.01 | 2.61 |
| 기타서비스 | 25.79 | 26.31 | 20.53 | 27.17 | 27.54 | 23.13 |
| 분류불가능 | 0.89 | 0.85 | 1.32 | 0.94 | 0.89 | 1.49 |
| 무직 | 5.07 | 4.47 | 11.27 | -- | -- | -- |

주 : 1) 경제활동종사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의미함.

2) 취업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3)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근로빈곤층II와 근로빈곤층III을 말함.

4)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한편 <표 16>은 근로빈곤층이 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근로빈곤층의 경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조사에 응답하였던 15세 이상 경제활동 종사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약 6.2%로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종사자의 비중 5.4% 다음으로 적다. 비빈곤층의 경우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약 5.1%로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경우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약 17.4%로 기타서비스업종을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약 14.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광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약 12.3%로 상당히 많다. 또한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직종별 구성의 분포보다 많이 관찰되는 업종을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의 비중은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3배 가까이 많다. 또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의 비중도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많다. 근로빈곤층의 이러한 업종별 구성은 근로빈곤층을 현재 취업중인 빈곤계층으로 정의하고 살펴볼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3. 근로빈곤층은 게으른 사람들인가?

근로빈곤층은 일할 능력이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빈곤한 것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거나 덜 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 마디로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이유는 이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생각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17>은 근로빈곤층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본 결과이다.

<표 17> 근로빈곤층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 %)

| | 경제활동종사자 | | | 취업자 | | |
|---------|-----------------|-------------------|------------------|-----------------|-------------------|------------------|
| | 전체 (n=6,470) | 비빈곤층 (n=5,869) | 근로빈곤층 (n=601) | 전체 (n=6,138) | 비빈곤층 (n=5,601) | 근로빈곤층 (n=537) |
| 18시간 미만 | 8.97 | 7.85 | 20.48 | 4.55 | 3.98 | 10.75 |
| 40시간 미만 | 9.72 | 8.64 | 20.66 | 10.13 | 8.94 | 23.09 |
| 50시간 미만 | 32.29 | 33.59 | 19.07 | 33.88 | 35.01 | 21.49 |
| 50시간 이상 | 49.02 | 49.92 | 39.79 | 51.45 | 52.07 | 44.66 |

주 : 1) 경제활동종사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의미함.

2) 취업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3)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근로빈곤층II와 근로빈곤층III을 말함.

4)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조사에 참여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9%로 가장 많다. 또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이다. 결국 2/3이상의 사람들이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 여전히 한국의 근로계층은 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빈곤층의 경우는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커져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하며,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34%에 이른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여전히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약 40%로 비빈곤층은 물론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작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당 평균 4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41%를 넘는다.

<표 18>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근로빈곤층의 생각

(단위 : %)

| | 경제활동종사자 | | | 취업자 | | |
|-----------|-----------------|-------------------|------------------|-----------------|-------------------|------------------|
| | 전체 (n=6,470) | 비빈곤층 (n=5,869) | 근로빈곤층 (n=601) | 전체 (n=6,138) | 비빈곤층 (n=5,601) | 근로빈곤층 (n=537) |
| 아주 건강 | 4.76 | 4.90 | 3.40 | 4.66 | 4.81 | 3.02 |
| 건강한 편 | 54.40 | 55.70 | 41.16 | 54.49 | 55.75 | 40.76 |
| 보통 | 30.38 | 30.46 | 29.52 | 30.32 | 30.53 | 28.02 |
| 건강하지 않은 편 | 9.77 | 8.44 | 23.34 | 9.81 | 8.39 | 25.45 |
| 건강 좋지 않음 | 0.69 | 0.50 | 2.59 | 0.71 | 0.52 | 2.76 |

주 : 1) 경제활동종사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의미함.

2) 취업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3)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근로빈곤층II와 근로빈곤층III을 말함.

4)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근로계층을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로 제한할 경우에도 근로빈곤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비빈곤층은 물론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보다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이유로 이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덜 일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틀리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근로할 수 있는 여건, 즉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구의 여건,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 때문에 이들이 일을 할 수 없거나 덜 하도록 강제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선 근로빈곤층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은 <표 18>을 통해 잘 나타난다.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편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이며 비빈곤층에서는 그 비중이 약 9%이지만, 근로빈곤층에서는 그 비중이 약 26%에 달한다. 근로빈곤층을 취업중인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살펴본 경우에도 근로빈곤층의 건강상

대는 비빈곤층의 건강상태보다 훨씬 열악한 편이다.

<표 19>는 근로빈곤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것을 보면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막론하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근로시간이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현재 근로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근로빈곤층에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종사자의 경우 자신의 현재 근로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약 2.9%에 불과하다. 비빈곤층의 경우는 그 비중이 약 2.4%에 불과한 반면, 근로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약 32%에 달한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에서 자신의 현재 근로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약 8.2%로 비빈곤층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3배 이상 많다. 취업자로 제한하여 살펴볼 경우에도 비빈곤층 중에서 자신의 현재 근로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이지만 근로빈곤층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8.1%로 3배 이상 많다.

<표 19> 근로빈곤층의 근로시간에 대한 생각

(단위 : %)

| | 경제활동종사자 | | | 취업자 | | |
|----------|-----------------|-------------------|------------------|-----------------|-------------------|------------------|
| | 전체 (n=6,470) | 비빈곤층 (n=5,869) | 근로빈곤층 (n=601) | 전체 (n=6,138) | 비빈곤층 (n=5,601) | 근로빈곤층 (n=537) |
| 근로시간이 길다 | 31.58 | 31.85 | 28.57 | 31.53 | 31.81 | 28.49 |
| 적당하다 | 65.51 | 65.72 | 63.19 | 65.60 | 65.80 | 63.42 |
| 근로시간이 짧다 | 2.92 | 2.43 | 8.24 | 2.87 | 2.39 | 8.09 |

주 : 1) 경제활동종사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의미함.

2) 취업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3)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근로빈곤층II와 근로빈곤층III을 말함.

4)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표 20> 근로빈곤층의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생각

(단위 : %)

| | 취업자 | | |
|----------------|------------|--------------|--------------|
| | 전체 (n=179) | 비빈곤층 (n=138) | 근로빈곤층 (n=41) |
| 근로시간을 늘이겠다. | 93.90 | 93.02 | 96.77 |
| 근로시간을 늘이지 않겠다. | 6.10 | 6.98 | 3.23 |

주 : 1) 경제활동종사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을 의미함.

2) 취업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3)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근로빈곤층II와 근로빈곤층III을 말함.

4)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한편 <표 20>은 자신의 현재 근로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소득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근로시간을 늘이겠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소득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근로시간을 늘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비빈곤층 보다는 근로빈곤층에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빈곤층의 경우는 소득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근로시간을 늘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약 93%이지만, 근로빈곤층에서는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96.8%이다. 결국 근로빈곤층이 일을 하지 않거나 덜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틀리지는 않지만, 근로빈곤층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들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구의 여건,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거나 덜 하도록 강제된다는 것이다.

IV. 결 론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이들의 빈곤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가 어떠한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에 앞서 빈곤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빈곤 측정의 기준과 단위에 따라 빈곤의 변화양상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대적 빈곤으로 측정한 빈곤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확실히 보여주지만, 상대적 빈곤으로 측정한 빈곤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다. 우선 측정의 오차를 감안하여 구간으로 추정된 상대적 빈곤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측정한 빈곤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근로빈곤층은 편의와 목적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혹은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너무 낮아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킬 수 없는 모든 노동자’, ‘현재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노동자’ 등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모두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빈곤한 사람들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고용상태가 자주 변화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그 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개인 단

위로 측정할 때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측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빈곤층과는 달리 남성의 비중이 약간 많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30~60세까지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어 개인적 특성이 취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약 32%로 가장 많으며, 자영자의 비중은 약 29%로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보다는 약간 적지만, 근로빈곤층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도 각각 9.2%, 11.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의 순이었고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 농림수산업, 도소매, 광업 및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나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비빈곤층은 물론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덜 일하기 때문에 빈곤하다는 생각이 틀리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구의 여건,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거나 덜 하도록 강제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근로빈곤층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이 연구가 특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우선, 상용직 집단의 빈곤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근로빈곤층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용직의 빈곤률 증가와 비중의 확대경향은 상용직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비정규직에 속하는 상당수의 일자리가 상용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온 원인일 수 있지만, 어쨌든 상용직의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쉽게 완화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로빈곤층의 직종별, 산업별 구성에서 농어업, 혹은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사실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흔히 임금근로자의 문제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어민의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이는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완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민의 근로여건이 임금근로자의 그것과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이들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 또한 임금근로자에 대한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어촌과 농어민의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찬용·김진욱·김태환(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금재호(2003). “일과 빈곤”. 『제 4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II』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
- 금재호·김승택(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세경제연구』 8(2): 511-539.
- 유경준(2000).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이병희·정재호(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 학술대회 발표문.
- 이주희(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태진(2003). “근로빈곤계층의 빈곤요인분석”. 『보건복지포럼』 77: 51-71.
- 진재문(2001).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가능성과 한계.” 『한국 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전』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87-106.
- 황덕순(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 홍경준(2003).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77: 43- 56.
- _____(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제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
- Citro, C., and R. Michael(1995). *Measuring Poverty: A New Approa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Gorham, L., and B. Harrison(1990). *Working Below the Poverty line*.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 Levitan, S., & I. Shapiro(1987). *Working but Poor: America's Contradic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Ruggles, P(1990). *Drawing the Line: Alternative Poverty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Schiller, Bradley R. 1998.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Ninth Edition. Prentice Hall.

